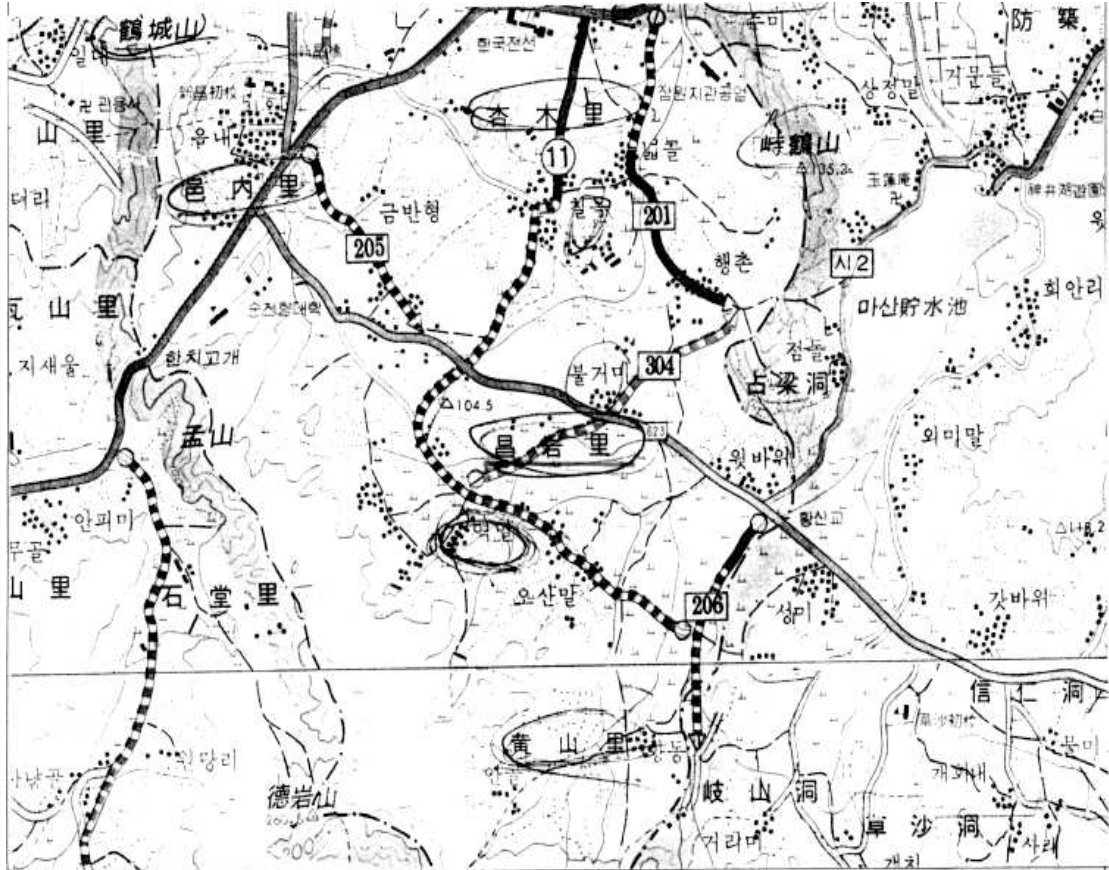


\* 마을사 \*

## 창암리 · 昌岩里

창암리는 신창면의 한 마을로 역말과 불거미로 이루어졌으며, 창암리의 총 인구는 440명이며, 호구수는 144호로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최씨 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은 본래 신창군 대동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창덕리, 부산리, 명암리, 오산리 일부를 병합하여 창덕과 명암의 이름을 따서 창암리라 하여 아산군 신창면에 편입되었다.

<창암리 위치도>



### ☒ 역말, 불거미(불거산리)마을(창암리)

창암1리는 역말마을이라 하며, 창암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이조때 운양 시흥도역 (송악면 역촌리)에 딸린 창덕역이 있었으며, 말이 먼길을 갈 때 갈아타거나 말이 쉬어가는 곳이라 하여 유래 되었다.

창암2리는 불거미와 울바위로 나뉘며, 불거미 마을은 불거미 또는 불거산리라고 불리고 있으나 한자로는 富巨리로 옛날에는 이 마을에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불거미로 불리게 된 것이라 하며 또는 불거미 산 밑에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불거미라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으며, 울바위는 역말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울바위라는 큰 바위가 있으며, 지금도 바위 부근에 아홉 개의 무덤이 있다고 한다.

<조사당시 창암리 마을 관련 사진>



### 1) 위치

역말 마을은 위도 36-45-30, 경도 126-56-50인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역말은 11번 도로의 시작점에서 1.5km 떨어져 왼쪽에 자리잡은 마을이며, 면소재지에서는 남쪽으로 약 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불거미 마을은 위도 36-45-50, 경도 126-57-20인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신창면의 304번 도로의 시작점에서 약 1.2km 떨어진 지점에 자리잡고 있으며, 면소재지로부터 약 4.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 2) 현황

역말 마을의 총 인구는 252명으로 남자 124명, 여자 128명으로 호구수는 총 80가구로 농업에 80%가 종사하고 있으며, 상업에 6.3%가 종사하고 나머지는 기타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불거미 마을의 총 인구수는 188명으로 남자 93명, 여자 95명으로 남자가 여자의 인구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총 64가구로 농업에 64%, 상업에 11% 기타 직종에 25%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 - 인구 현황

구 분 마을명	계	남	여
역말 마을	252명	124명	128명
불거미 마을	188명	93명	95명

####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상업	기타서비스업
역말 마을	100%	80%	6.3%	13.7%
불거미 마을	100%	64%	11%	25%

역말마을의 농경지 현황을 살펴보면 논 52ha, 밭 33ha 이며, 논이 더 많고 농기계 현황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가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마을회관이 1개소 있다.

불거미 마을의 농경지 현황은 논 37ha, 밭 23ha로 분포되어 있으며 농기계 현황을 살펴보면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콤바인등 각종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트랙터와 콤바인이 다른 농기계보다 많으며, 문화시설로는 마을 회관 1개소가 있다.

- 농경지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	여
역말 마을	85ha	52ha	33ha
불거미 마을	60ha	37ha	23ha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계	마을회관	기타문화시설
역말 마을	1개소	1개소	-
불거미 마을	1개소	1개소	-

역말 마을의 성씨별 분포 현황을 보면 이씨 38%로 가장 많고 최씨 31%, 김씨 25%로 조사 되었고, 연령층을 보면 50~70대가 가장 많다.

불거미 마을의 성씨별 분포 현황을 보면 최씨 28%로 가장 많고 김씨 19%, 이씨 23%로 조사 되었고 50~60대가 가장 많고 마을의 노령화를 볼 수 있다.

- 성씨별 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김씨	이씨	최씨	기타성씨
역말 마을	80호	20호	30호	25호	5호
불거미 마을	64호	12호	15호	18호	19호

- 최고령자

역말 마을의 최고령자는 오 천근씨로 95세이시며, 불거미 마을은 최고령자는 정정호씨로 96세이시다.

3) 자연경관

역말 마을은 마을 입구에는 큰 미루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둘러서도 잡을 수 없을 만큼 큰 나무였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마을을 감싸고 있는 비파산이 있으며 마을 옆에는 도로가 있고 도로를 따라 논이 펼쳐져 있으며 논 중간쯤에는 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불거미 마을은 마을 아래쪽으로 두 도로가 교차하고 있고 그 도로밑으로는 많은 논이 있으며 마을 오른쪽으로는 산이 있는데 이 마을은 신창면의 동쪽 끝 마을이다.

#### 4) 마을 변천 과정

창암리는 본래 신창군 대동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창덕리, 부산리, 명암리, 오산리 일부를 병합하여 창덕과 명암의 이름을 따서 창암리라 하여 아산군 신창면에 편입되었다.

#### 5) 입 향

역말 마을은 이조때 온양 시흥도역(송악면 역촌리)에 딸린 창덕역이었으며, 이 역이 생기기 시작하므로해서 마을이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형성년대는 서기 1800년경 200년경으로 추정 가능하며 원거인은 알 수가 없었다.

불거미 마을은 역말 마을과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측되며,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셨던 성씨는 여주 이씨로 7대까지 살았던 것으로 보아 서기 1790년경 약 210년에 형성된 것으로 추측 된다.

#### 6) 지 명

##### 十 역말 마을의 지명

- 역말 : 창암리에 가장 큰 마을로 이조때 온양 시흥도역 (송악면 역촌리)에 딸린 창덕역이 있었음. 말이 먼길을 갈 때 갈아타거나 말이 쉬어가는 곳이라하여 역말이라 유래됨.
- 뱀산 : 역말을 감싸고 있는 산이 마치 뱀처럼 생겼다해서 뱀산이라 부르고 있는데 옆 마을이나 타지역 사람들은 이산을 비파산이라 함. 그것은 '산이 살쥘 있다'라는 속뜻이 있음.
- 오목내 : 온양 기산과 창암리에서 발원하여 점량리를 통해 신정호에 이름.

##### 十 불거미 마을의 지명

- 불거미(불거산리) : 불거미 밑에 있는 마을. 산이 황폐하여 검붉은 산이 있음. 옛날에는 이 마을에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하여 불거산리라 불리웠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불거미로 변함.
- 선돌 : 생성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유래가 깊고 높이는 110cm 정도 상당부분 결실된 것으로 추정됨.
- 올바위 : 역말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올바위라는 큰 바위가 있으며 지금도 바위 부근에 아홉 개의 무덤이 있음.
- 불거미 : 올바위 서쪽에 있는 산. 높이 102.9m가 되는데 흙빛이 붉음.
- 오리정 고개 : 올바위에서 읍내리로 가는 고개로 읍내리에서 오리가 되므로, 전에 오리정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음.
- 오목내 : 온양 기산과 창암리에서 발원하여 점량리를 통해 신정호에 이름.
- 맹산 : 불거미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산 주인이 맹씨였다고 하며, 현재는 이곳에 묘를 옮기고 난 흔적이 있으며, 맹씨들의 묘로 전해오고 있으며, 맹씨들의 산이었다 해서 맹산이라고 불리게 되었음.
- 올바위 : 명암 앞에 있는 바위

#### 7) 전 설

##### 十 올바위의 전설 (불거미 마을)

- ① 옛날에 전염병이 심하여 한집에서 아홉사람이 죽어 장사를 지냈는데 너무 서러워 이 바위에 앉아 한없이 울었다고 해서 올바위라 했다.
- ② 함경도에 한 충신이 살았다.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서 왕의 성을 독차지 할 정도였다. 그러므로 자연히 시기하는 자가 많아져 나중에는 역적으로 몰리게 되었다. 결국 충신은 사약을 받고 가족들은 집을 떠나 현재의 창암리에 마을을 잡고 살게 되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 죽게 한 자가 나중에 후한이 있을지 모르니 가족을 모두 죽여야 한다며 칼잡이를 시켜 창암리로 보냈다. 그때 창암리에서는 아무것도 모른채 충신의 가족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다음날 식구들은 모두 시체로 발견되었지만, 큰 딸과 막내딸이 마침 친적집에 가 있어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 막내도 슬픔에 잠겨 목숨을 잃고 난 후 큰 딸은 장성하여 남장을 하고 식구들의 원수를 갚고 무덤 앞에 돌아와 한 없이 울었다고 한다. 시간이 흐른 뒤 딸은 온데 간데 없고 그 자리에 바위가 생겼는데 큰 딸이 울다가 변한 녀이라하여 울바위라 부르게 되었다.

③ 울바위 옆으로 옛날 도고에서 온양장으로 가기 위해 지나는 삭실이라는 고개가 있어 그곳에 위치한 울바위 주위로 주막이 몇 개가 있었다고 한다. 이 주막들은 6.25까지도 있었으나 이를 전후로 점차 없어졌다고 하며, 그 주막들 중 한 주막에 여자 주인이 무슨 이 유인지 서방을 얻으면 죽고, 또 얻으면 죽고 몇 차례 계속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자 여자는 이 바위에 올라가서 울었다 한다. 그러다 고개를 넘어가는 남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그 여자의 남편이 되어 주고 그 후 그 남자들 역시 죽게되는 일이 계속 반복 되었다고 한다. 그럴때마다 이 바위에 앉아 울었다하여 울바위라 했다고도 한다.

####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 행사

역말 마을은 해마다 정월 14일전에 생기복덕에 닿는 사람이 음식을 장만하여 제를 지내기 전까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였다고 한다. 제를 지내기 3일전 사방에 향토흙을 놓고 부정하거나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출입을 금했다고 한다. 제가 행해지는 전날에는 북과 팽과리와 장구를 치며 놀았고 제가 끝나고 나면 마을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그러나 노신제는 20년전부터 제가 소홀해져서 나무 옆에 돌내각을 세웠다고 한다.

불거미 마을은 예전에는 성황당을 모셨는데 현재에는 모시지 않고 있으며, 우물제를 모시고 있다. 우물제는 마을 이장과 노인회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축문을 읽고 우물에서 제사를 지내며, 그 음식을 마을 사람과 나누어 먹는다. 또한 대동계가 있는데 매년 1월 7일로 마을에 애경사 및 마을 행사를 같이 의논하는 자리로 모든 마을사람들이 참석한다.

#### 9) 특별하게 소개할 만한 인물

##### 10) 종교현황

역말 마을은 창암감리교회로 18명의 신도수가 있으며, 절은 없다.

불거미 마을은 종교단체가 전혀 없다.

##### 11) 공장현황

역말 마을에는 공장이 없고 불거미 마을에는 동진주식회사가 있으며, 지금 건축중이다.

力 동진(주) : 창암 산 40-9 자동차부품 96. 10. 2. 면적 16,323㎡ 건축중임.

##### 12) 마을의 특성

역말 마을은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마을로 비파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으며, 해마다 노신제를 지내고 있으며, 아직도 시골적인 풍속이 남아 있는 마을이다.

불거미 마을은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으며, 특산물로는 수박과 포도농사를 짓고 있으며, 특수작물을 하는 농가와 비농가사이에 소득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선사시대의 유적으로 110m 높이의 선돌이 있으며, 상당부분 결실되었고, 전형적인 시골 마을로서 아직도 인정이 살아 숨쉬는 따뜻한 마을이다.